

간석4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는  
18년도 대림시기를 맞아, 이웃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보리빵을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연탄 1,500장을 구입하여 신경동 일대에 배달하였습니다.  
또한 남은 수익금인 2,140,000원을 전달해  
재단 운영시설인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겨울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동계점퍼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장이며,  
재단의 제3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정신월 묘한세례자 주교님께서  
1,000,000원을, 라방 성자순례팀(이총희 세실리아님 개인후원 포함)  
에서 2,000,000원을 후원해 주시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는  
알폰조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해외 자선사업)



우리은행은 올해 연천지점 개점 1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와 공헌의 의의로  
인천지역의 위기청소년과 취업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재단 운영시설인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에 10,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자활작업장 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포동성당에서 친라면 50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단 운영시설들에 전달되어  
쉼터 생활 청소년들과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의  
요인한 간식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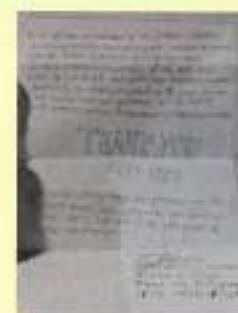
중2동성당 소년 지혜의생 블레시디움에서는  
19년도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일상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선형 중 하나로, 사순시기 매나마  
좋아하는 간식을 끊으며 비용을 모아 어려운  
또래 친구들에게 쓰미개 해달라고 60,000원을  
재단에 기부하였습니다.

기억에 부족하여 모든 후원회원님의 소식을 계기하지 못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맑음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2019년 상반기 소식지 「맑음」  
VOL. 15



2019 한국에서 하시 과정이었던 구는구비영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감성법이트와주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의 모든 후원회원 분들과 직원 분들 감사합니다~

물질적·정신적으로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힘내고,  
모든 순간 상냥하고 사랑으로 보답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모든 사람과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빠른문을 축복해주시고, 둘보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혼안 캐슬로스 레이싱 암esson 슬라이드 출판 -



## CONTENTS

- |      |  |                |  |
|------|--|----------------|--|
| 발행일  | 2019. 6.   | 12. 이증人        | 예쁨이, 너희는 지금도 충분히 살하고 있는데<br>- 김문영 후원회원   |
| 발행처  | 서원회  | 13. 기증하여 응답수료일 | 2019.7.31(한글날)까지 출구 부포로 1<br>기증석류송년설비 4종 |
| 내용선택 | 1000(198~1218, 1398)                                 | 14. 후원안내       | 후원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
| 후원연속 | 1000(198~2943)                                       |                |  |
| 홈페이지 | <a href="http://www.yesw.co.kr">www.yesw.co.kr</a>   |                |  |
| 메일주소 | <a href="mailto:yesw@yesw.co.kr">yesw@yesw.co.kr</a> | 17. 후원회원 명단    | 전소년과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주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문의처  | <a href="mailto:yesw@yesw.co.kr">yesw@yesw.co.kr</a> |                |  |

[8] 가족학부를 학습의 재료로 만드는

1996년 원주고 인천교구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인천교구 지역 내 22개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 교회 청소년  
멘토링과 교회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사회화운동을 실천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신앙으로 인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보  
성년 활동 등의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0기념비전 청소년 대전전 출판부

- 상당복지
  - 지도교사법
  - 교육연구
  - 국제교류
  - 합동사업
  - 청소년정책
  - 자활·자립
  - 보호복지

청소년을 만나는 저희들은  
의류와 학습지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어 중심으로

- 먼저 대기하고, 먼저 친사하고, 먼저 물을 줍습니다.
  - “안녕다.” 를 말하거나 “황제 생각해보기” 를 실천하겠습니다.
  - 청소년을 만나는 순간마다 눈을 맞추고 존중하겠습니다.
  - 청소년의 욕구와 경험을 우선시하겠습니다.

현대나눔총회

- 절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스스로를 서로에게 정직하겠습니다.
  - 뜨거하지 않고, 면약한 그 자리에 있어하겠습니다.

三編 附錄二

- 젠수년과 만남의 처음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 헤스본은 위해 물었듯이 ‘why?’를 질문하고 ‘how?’를 고민하였습니다.
  - 헤스본 전후기에서 저기기념에 회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나데라스니그라

제는 올해 1월부터 이제학 신부님의 취를 이어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사무총장의 소임을 받은 최민비 유스티노 신부입니다.

후원회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가슴 같이 우리나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으나,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단의 신부들은 해를 찾ate 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후원회원님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여, 마음을 달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혹여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마음에 후원회원님들과 비교하여 저희의 마음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다시금 물어보며, 저희도 그 마음에 늘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려고 합니다.

저는 신부가 되어 혼당에서 5년, 청소년 현장에서 10년을 보내고, 작년 인식변을 보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고 폭넓습니다. 작년 인식년이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늘 생각났습니다. 그 중 제일 많이 생각났던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전해 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난 것은 6년 전 부천일사창소년쉼터에서 소장을 할 때입니다. 그 친구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지만, 엄마와의 갈등과 밤길 속에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사립을 밟지 못하여 차관 그 친구는 놀 남자친구에게 침착하였고, 그러다가 여러 훌지 않은 일에 면부되어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보내고 풀마운 그 친구는 제게 이전 물질의 꿈을 살겠다고 했지만, 다시 힘신과 낙태라는 애증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파하며 아기의 명예를 위해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자가 되어 교리를 공부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마음을 잡았는지, 걸정고시 글부로 하고 취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자를 만난 그 친구는 제게 조심스레 다시 일신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그 친구는 아기를 낳아 열심히 키우고 있으며, 마기는 유마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하여 공부하여 지금은 실습 중입니다.

저는 청소년을 만나면서 살피면서 힘들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바로 「코로나 신자들에게 보낼 첫째 서간」 13장 4절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불안한 모습이지만 늘 믿고 기다려 주는 것!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되기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곁에 있는 것!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사무총장의 소임을 맡은 저는 우리 후원회원님들께도 그런 사랑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우리 재단이 부족하고 눈에 띠는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항상 노력하고 청소년 곁에 있다는 것  
머무시고, 저희가 청소년 곁에 기다리는 것처럼, 저희 곁에서 믿고 기다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님 가정에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 함께 하시 기도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어느날  
제단법인 가톨릭 마동청소년재단  
사무총장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 제2대 이재학 · 제3대 최인비 사무총장 이·취임식 개행

1월 11일(금) 재단 운영시설의 대표자 및 중간관리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제2·3대 사무총장 이·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지난 13년간 오직 청소년들의 힘 행복을 위하여 한신에 오신 제2대 이재학 사무총장 친부님께 감사인사를 전하였으며, 끄읕 이어 새롭게 사무총장이 된 최인비 신부님을 축복하였습니다. 더불어 전(前)·현(現)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다시금 앞으로 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제25회 바다의 별 축제' 체험·홍보부스 운영

1월 20일(일) 인천광역시 각 본당 청소년들이 모여서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제25회 바다의 별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도 축제에 참여하여 재단에 대한 소개와 대회에 2019년도 재단 서포터즈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잔디인형 만들기'라는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약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잔디인형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2기 청소년운영위원회 Y.A.S.H. 워크숍 진행

재단의 청소년 자치기구로, 올해 초 선발을 통해 위촉된 12기 청소년운영위원회 Y.A.S.H.의 워크숍이 5월 11일(토)~12일(일), 1박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3개의 분야별로 나뉘어 재단 운영시설을 방문하고 프로그램을 직접 참가함으로써 청소년시설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고, 활동 동기를 부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교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위원들 간의 친목을 형성하였습니다. 일정으로 이들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재단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진행·평가하여 주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체험·홍보부스 운영

5월 23일(토)~25(일) 총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에서도 박람회에 참가하여 청소년 및 지도자, 지역주민들에게 재단과 운영시설을 소개하였으며, '나만의 DREAM 책자'라는 이름으로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자신만의 죽지를 만들어 봉투를 구워하는 체험활동으로, 약 5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체험부스는 재단의 서포터즈와 청소년운영위원들이 직접 운영하며, 활동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재단 사무처 주요소식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 청소년연구소 맡김

2019년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꿈꾸는 별, 세계속으로' 공모사업 선정 청소년연구소 맡김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꽃과 사랑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글로벌사업에 운영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청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청소년 18명과 함께 5월 18일(토) 백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된 연합발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쁨과 학교·인천성모병원·문화 미나리 기관·체육대학교·국제성모병원·진애여자도 학력을 떠어 대체 안전하고 효율적인 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은 7월 27일(토)~8월 5일(월), 총 8박 10일정으로 파견될 예정이며, 청소년들의 차이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A)인식 확장을 고려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 ☎ 032-777-1318)



###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꿈꾸는별

학교폭력예방 연합캠페인 '청·실·환' [청소년의 마음(心)을 환하게] 운영 4월 19일(금)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꿈꾸는별에서는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추홀경찰서, 민안남중학교 도래상담기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인천남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연합캠페인

'청·실·환' [청소년의 마음(心)을 환하게]를 진행하였습니다. 미반 침폐안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상황에 대하여 대처법법 및 실각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학교폭력 OK푸즈, 물방울리기, 다짐풀이기, 긴이상답 등의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었습니다. 퇴폐안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문의: ☎ 032-817-1318)



### 인천광역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바다의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나는 나 비(飛)' 실시

4월 2일(화)~5월 7일(일), 매주 흐요일마다 인천광역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바다의별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나는 나비'를 실시총 6회기로하였습니다.

'나는 나비'는 보호청소년 특성에 맞춰 2018년 원주시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다른과의 관계형성을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퇴소 이후에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소중한 나 이해하기', '나의 경험 깨닫기', '나의 want 찾기', '나·우리 서로 존중하기' 등으로, 그 결과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하고, 미래 꿈에 대한 목표의식을 더욱 확실히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문의: ☎ 032-408-1318)



### 인천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별마루

국제리더십학생자치단체(AIESEC)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진행

1월 29일(화)~2월 1일(금) 총 3일간, 인천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별마루에서는 보호청소년과 국제리더십학생자치단체(AIESEC) 대학생들이 함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새해 소원 빙기, 각 국기의 전통계임 및 스모오체험, 언어교환, 타국의 문화 이해하기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를 원자리에서 온 유학생들의 도움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평소 핸드폰과 PC 개인만 번복하는 어려움을 한계를 벗어나, 해외문화와 외국어 학습 등에 대한 흥미를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의: ☎ 032-875-7718)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 인천광역시청소년차립지원관 별바리기

100SHOW 공연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4월 26일(금) 인천광역시청소년차립지원관 별바리기에서는 인천남자단기침터 바다의별, 인천남자중장기침터 별마루와 함께 공연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21명의 보호청소년들이 활성화하여 차립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주거환경 및 근로에 대한 담소를 나누며 친목식사를 함께하였습니다. 이후 무용에 위치한 소극장을 이용해 KBS 공해 개그맨들이 진행하는 100SHOW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박변을 뜯어야 종료되는 기상천외한 개그쇼를 보며, 신나게 웃고 미들면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리고 활력을 재충전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의: ☎ 002-875-1318)



### 인천광역시청소년차립작업장

청소년 대상 바리스타 직업체험 실시

4월 18일(목) 인천광역시청소년차립작업장에서는 인천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직업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커피의 기원과 역사를 알고 제작환경, 수학방법, 가공방식 등 다양한 과정을 이해하여, 직접 커피를 추출해 놀으로써 원두의 특징과 로스팅 단계별 풍미를 막악하는 등 바리스타 직업과 관련하여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폭넓은 친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의: ☎ 032-773-1319)



###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별사탕

지역사회 지원을 활용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진행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별사탕은 지역사회 다양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월 1회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사가 쉼터를 방문하여 입소 및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 청소년의 흥미를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핸드드립, 햄수, 예 코미 만들기 등)도 진행하며 그룹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관계 기술의 향상과 소근육과 대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운동-처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 032-654-1318)



###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 청소년 보호·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5월 17일(금)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시흥시 관내 6개 청소년시설과 함께 청소년 지역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복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우리 재단의 운영시설인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활동시설과는 보호청소년의 문화시설이용과 활동지원을 위해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남자청소년쉼터와는 연합아웃리치·홍보·상담프로그램 연계 등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업에 학제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의: ☎ 031-434-1318)



### 재단 운영시설 주요소식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지도교사 사업설명회' 개최

4월 4일(목)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인천권역 또래상담 운영학교 267명의 지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지도교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또래상담 분야의 변화된 내용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또래상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센터-교육청 패널자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래상담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문제, 전문·학업·가족문제·스트레스 등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에 조력하여 이들이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생활의 세련 영역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의: ☎ 032-721-2303)



### 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9년 인천권역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 진행

3월 20일(수) 인천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천권역 꿈드림 대표 청소년 13명을 꿈드림 청소년단으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본 센터 교육연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9년 한 해 인천권역 내 꿈드림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프로그램, 홍보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의: ☎ 032-721-2330)



###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년 또래상담연합회 발대식' 개최

5월 13일(월)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또래상담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계양구 관내 10개 고등학교 또래상담자 50명을 연합회 모래상담자로 위촉하여, 이전 2018년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2019년 연합회 모래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촉된 50명의 또래상담자는 2019년 한 해 동안 또래상담 심화교육 및 슈퍼비전을 제공받고, 문화체험 및 학교폭력예방 행제민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또래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문의: ☎ 032-547-0856)



###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청소년들이' 운영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통해 개인인의 개성과 소질 개발, 사회성 및 전통성 선진, 평민한 대인관계 형성 등의 천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2018년 7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아카데미와 토큰돌이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금) 스포츠풀이라는 경기공원 축구장에서 서구 꿈드림과의 친선풋살경기를 통하여 구성원간의 친밀감 형성, 협동심 배양, 혜택 증진 등을 하였습니다. (문의: ☎ 032-547-0853)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2019년 리더또래상담자 연합 발대식' 개행

4월 13일(토) 연수구 관내 중·고등학교 리더또래상담자 총 26명을 대상으로 '2019년 리더또래상담자 발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또래상담자의 역할교육 및 교류활동을 통해 리더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학교문화 협성을 기여하였습니다. (문의: ☎ 032-749-6295)



### 연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사진동아리 '우리들의 빛: 그림' 전시회 진행

5월 30일(목) 연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사진동아리 '우리들의 빛: 그림'의 전시회를 청하문화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약 5개월 간 청소년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전시회를 꾸몄으며, 차연과 도심 속에서 자유로운 주제로 찐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단 운영시설을 비롯하여 연수구 지역 내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자주감 향상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의: ☎ 032-822-6840)



###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별(친구)의 별(친구) 사이를 이어주는 별별리더 5기 운영

4월 19일(금)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리더또래상담자 연합회 별별리더 5기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리더 또래상담자 연합회 별별리더'는 친구들의 별의 별 이야기를 들어주고, 별(친구)과 별(친구)사이를 이어주는 중구지역 중·고등학교 또래상담부의 리더들이 모인 조직으로, 총 65명의 리더또래상담자가 2기본과(연구/정보)로 나뉘어 학교폭력 예방방안을 연구하고,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와 고민을 알색하고 해결책을 찾았으며, 1388청소년전화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중구지역의 학교폭력 예방과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문의: ☎ 032-773-1318)



### 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성장힐링여행 '단풍 애세이'

5월 22일(수)~27일(월), 5월 6일 등만 중구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들과 중국 단둥으로 역사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인천항과 단둥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고 15시간의 긴 항해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가 담겨있는 오녀산성, 광개토대왕비, 장수원릉 등의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하늘이 해ழ까지 많으면 볼 수 없다는 벽부산 천지 또한 청소년들의 맑은 마음 억분인지도 화창한 날씨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현지를 바라볼 수 있었고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단 현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단행여행은 청소년들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었고,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넓히는 등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의: ☎ 032-765-1006)



### 재단 운영시설 주요소식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재단의 노력은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단 운영시설 주요소식

####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 수련지도자 연수 및 실무협력을 위한 법무협약 체결

4월 1일(월)~2(화)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을 담당하는 저도자 9명을 대상으로 의정부고구한마을청소년수련원에서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사업의 방향을 바로잡고 대처하기 위해 쓰는 SWOT 분석방법을 통하여 수련지도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마음-바다의별 청소년수련원 간 법무협약식과 팀별회의를 통해 한후 살포 협력을 위한 합의사항을 도모하였습니다. (문의: ☎ 032-932-6318)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 '꿈풀장터' 진행

5월 11일(토)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은 연수구청 한마음광장에서 연수구를 대표하는 청소년축제 '꿈풀장터'를 진행하였습니다. 꿈풀장터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로, 연수구 내 학교, 청소년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활동부스, 꿈풀카페, 한마리 꿈나무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꿈꾸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일정 5월을 맞아 진행한 이번 꿈풀장터는 청소년기획단에게는 자치기획 능력개발 기회를 찾며 청소년들에게는 새로운 활동을 통한 지역의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축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의: ☎ 032-833-2012)



###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 '청소년 직업체험 마을 만들기' 개최

5월 16일(목) 17일(금), 29일(수), 31일(금)에 걸쳐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면허증하고 261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위원회, 마을사무소, 은행, 기업, 시립, 차병원 등 가상마을에서 자신이 진로유형에 적합한 직업군을 직접 체험해보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의: ☎ 032-833-2015)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 '시흥시청소년어울림마당·세대공감축제 '소통놀이터'' 성황리 종료

5월 5일(일)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달미당에서 시흥시청소년어울림마당·세대공감축제 '소통놀이터'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페미스페인팅, 가족사진관(포토사진), 청수문방구(학자치기), 공기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거리가 운영되었으며, 부모님이 어릴 때 즐겼던 추억의 놀이를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가족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버스킹존을 설치하여 댄스 및 보컬 등 청소년들마리의 거리공연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소통놀이터'에는 약 800명이 참여하였으며, 축제를 통하여 지역 내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참여욕망을 증진시키고,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의 질을 마련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문의: ☎ 031-315-1897)



### 인천진로교육센터

#### 학창 선배와 함께하는 '꿈지락 진로멘토링' 진행

인천진로교육센터는 3~5월 총 4회에 걸쳐 중학생 3학년~고등학생 3학년 18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공학·고목·사회·인문 층 쪽 개별화 대학생 멘토 22명이 해당 전공계열의 교육과정과 출연 후 전망, 구체적인 진학준비방법에 대해 안내함은 물론, 진로선택에서도 출고적인 학습방법과 시간 관리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진로고민에 머뭇한 저지를 보낸 학생에게 청소년들이 진학준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진로멘토링은 올 12월까지 매월 풀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어, 보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인천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70-4204-0622)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한국을 넘어 필리핀 청소년도 품에 안다!

3월 13일(수) 오후 1시 30분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수술실에 필리핀 낭자아이 후안 카탈로스 레옹 알론조 손비드(이하 알론조)가 들어갔습니다. 만 10살 치고는 한국 또래 청소년보다 체력이 회소한데다 턱에서 받은 수술이라 긴장하지는 않았지만 열려하는 무리에게 모의해 써버린 얼굴로 떨게 됐으며 수술을 잘 받고 오겠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한지… 수술이 무사히 끝마칠 수도 있도록 수술실 앞에 한창을 서서 화살기도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필론조는 지난년이 실시한 해외 자선사업 중 의료지원사업의 첫 번째 흥아(患아)로, 지난 2016년 '필리핀 바기오 시 사회복지개발부: CSWDO' 와 협력 및 교류 협정을 체결함에 따른 진행화로 되었습니다.

조손가정에서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일흔촌은 입술과  
잇몸, 일련상이 갈라진 구순구개열의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태어나 필리판에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세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였으며, 그에 따른  
만성 증이 엄까지 일어나 청력 저하, 밤동 무정획 등의 2차  
적인 기능문제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알폰조를 한국으로 데리고 있으며, 한천성모병원의 경질검진을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배출되어 있는 암술 및 잎풀 균육을 다시 재자리로 풀기 구순술을 고집하는 성형수술과 종이 내 기관암 치료술을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실험단 흥미도 많이 죽어졌을 정도로 회복률을 잘 만진 알폰조는 3월말 본국인 필리핀으로 다시 출국하였습니다.

이번 일론조 치료를 위해서는 재단 뿐만 아니라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성모지선회 등이 후원하였으며, 재단 운영시설인 「청소년연구소 박물」에서 필리핀 바기오시, 인천성모병원과 협력하여 총괄 운영하였고,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센터」에서 수술준비와 회복지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론조가 품스매이식으로 충전기형소년쉼터에 머물면서 쉼터 내 청소년들 사이에 영어 공부를 나누어나고, 청소년들이 이란브이티에서 벌은 응원들을 일론조를 위해 멘지와 선물을 준비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고정성이 베운이 나타나며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재단 사무총장인 최민비 유스티노 신부는 “성형수술이 만연하는 우리나라에서의 구속구개증은 간단한 성형수술에 속하니 당장의 손상과 함께 웃지 않은 필리핀여성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주도 할아버지의 의지가 없었다면 치료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알론조와 함께 다른 청소년도 데려 도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 발급 시 발생 비용이 없다고 부모가 거부하여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이번 수술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을 뛰어 넘어 놀림과 수치심으로 명들었던 알론조의 마음까지 치료되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렇듯 기록학적 청소년 재단은 기록학 전선으로 아름·  
청소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하여 해외 자선사업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 사업과 보호·상담·활동 등의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 자선사업의 일환인 의료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후원회원님들의 사랑에 힘입어 한국의 청소년과 더불어 해외의 모든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권리를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第四章：数据可视化

④ 구은구계행은 물결에 나타나는 2월 흐린 선천경 기형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0~1,000명당 한 명정도 발생되며, 물결이 만들어지는 일년 4~7주 사이에 임신(구조)과 출산(구계)을 겪는 조제와 적절이 물려 못생기거나 불안하여 바로 유퇴되거나 절제되거나 칠고 벌어지면서 생기는 접습 또는 낭천증후군이다. 단순히 이로부터 칠장증 증상의 강도를 판별하는 한마디로 유토, 면역, 생체에 미치는 종종적인 변화를 여기면서, 따라서 임신, 출산 등 아파에도 조작되어, 이를 통해 물결 상황과 형태를 판별할 전략이 바탕화학으로 될 수 있음.

• 電影：「星際救援」(Interstellar) 和「地心引力」(Gravity) 被認為是這兩部電影的代表作。

제단법의 가톨릭인들 청소년 가드

- 본 대 : 032-798-7942 (영업 10:00~18:00) / [www.yesmaru.kr](http://www.yesmaru.kr)
- 후원계좌 : 해피 차선 사업 | 신한 100-029-796500  
국내 철수/사업자 | 국민 651001-01-200219 | 농협 147-01-21406



### 91. 알뜰폰은 악로 기구들이 합나다.



#### 04 수술 후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마을이 더 미어진 내일



02 나중에 사제가 꼰만 말은 조는 담동주교좌성당을 꼭  
기보고 싶어 했답니다~  
다행히 귀로일경과 잎이 '재회수요일미사'에 참여해  
가를 엮었어요~



#### 05 모두의 기도 속에 암튼조는 무사히 수출과 환율을 마쳤어요~



### 03. 승승장구를 위한 첫 번째 목표



06 재단 운영시 증상이 '청소년연 구소 암울'에서 물 7~8월  
진행될 청소년학제적 활동사업 담사를 위하여 간을 때  
최근 알론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다도 심하게 대처 해야겠어요!!



충의든까소 송도점 대표 김문영 후원회원님

### ○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김문영 디에고입니다.

광생을 무역업만 하다가 온하고, 현재는 충도에서 요식업인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가대와 결성중입니다. 활동단 등 1주일에 3~4번씩 성가를 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우리 재단 특별히 청소년을 위하여 후원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처음에는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 대해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주말マイ에 참여하여 간간히 2통설당에 그날은 이재학 신부님(前 시무총장)께서 모셔서 미사집전을 하시더라고요. 강물이 '현재 청소년들의 성황과 그에 따른 재단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통과 위험에 내몰린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는데... '마음에 와닿았다.'는 표현보다는 '마음을 울렸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학 신부님의 영향이 커비요.

또한 가장 확실한 게 좋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곳에 관심도 계속 두고,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좋은 일을 하는 곳들도 많지만, 다른 단체는 제가 그 곳에 대해 알고, 확인하고, 또 신뢰를 쌓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가톨릭신자로서, 천주교를 잘 알고 신뢰는 물론 또 그 진정성을 알기에… ‘후원을 하더라도 확실한 곳에 하자!’라는 생각에 가톨릭이동성소년재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들어 예전부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살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식당을 하는 이규도 청소년들이 마른비비트를 하며 단시간 내 조금이나마 자리를 잡질 버리는 이유에서 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놀 게 음식이기도 하겠지만요. 축하해

Q 평소 후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A 후원은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세대는 자동차에 대한 후원이 아니라 차에 대한 체계가 성공되면, 휴대폰으로 한 달에 한 번 예상치거나 전송되어야요. 저는 그 예시지를 확인하면서 미처 소통가기 전날의 설렘과 같이 순간 짜릿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이런 나날의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Q** 후원을 통하여 생각이나 가치관 등 변화가 생겼다면, 어떤 부분들이 일으신가요?

A 현대는 삶의 형태가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좀 더 많이 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사목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앞으로 내게 주어진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 뜻과 일치하기도 했고, 제단에 후원을 하며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활동하는 성가대에 저희 가능하신 분들도 계셔 그 분들도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과 함께 협창단 또는 공연 지도 등의 분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 지도하기에는 능력이 떨어나지 못하거든요. 후회하-

또한 토요일 종교동부 미사를 참여해보면, 성당 안에 청소년들이 많이 없는 모습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목표가 청소년들과 함께 대대적인 미사를 통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지만— 굳이 한마디 하자면, ‘예를들어, 너희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면서’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출생하고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대 때 부모님 이혼은 지금과 다른 상황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약 1,000가정에 1가장꼴로 있을까 할 정도의 정밀 흔치 않은 일이었죠. 중학교 1학년 때는 전고 2~3년까지 했다가 부모님 이혼 후, 연립교사에 배지를 넣 정도로 방황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복수하는 걸로 알았던 거죠. 그렇게 방황을 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찰피하다고 어인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인 외국에 어인을 한 사람에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마을속에 세계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잘 이해가 안 돋는군요.

아마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더불어, “생각과 마음을 넓게 가져라!”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청소년기에 방황하면서 이유가 짐작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넓게 가지면 짐작과 더불어 많은 무언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묘한 터넷, DNS 등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꿈과 이방을 더욱 크게 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겠지요? 대신 줄간줄간 춤들리지 않게 춤상을 잡도록 언제든 도와줄 거릅니다. 그 중심이 종교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우리 청소년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09]인 후원금위원회에서는 개인적 경험을 전자화하여 후원과 나누는 것을 강조해요.  
후원과 나누는 행동으로 후원금을 사용하여 기관을 찾는 손님들에게 기쁨과 따뜻한 감동을  
전해나타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과 나누는 행위를 소개하는 소재를 확장

정부는 축구장을 마련하여 여전히 활동하시는 경찰청 경찰대학  
연계나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장을 찾으시거나 주민들에게 그 활동을 알리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찰대학에 축구장을 주고자  
코스피를 이용한 시장의 차익률을 끌어주는데 차지 한 번 전신으로 경찰대학입니다.



TABLE 4. Mean 2004-05, 2005-06 and 2006-07 average monthly temperatures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들의 맑은 노력**”

## 후원회원님께 안내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신청해주신 후원금이 잘 출금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1 첫기후원(CMS)의 경우, 자동이체 일자에 잔액이 부족할 시 출금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출금이 실패되면 재출금이 1차례 진행되며, 또한 6개월 이상 재출금 실패되면 후원종결로 간주되니  
자동이체 일자에 맞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2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세요!  
후원회원님에 재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재단소식지(연2회, 상·하반기)의  
부록·선탐대축일을 맞아 이사장님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후원회원님의 주소, 연락처, 결제정보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단으로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3 매월 후원회원님을 위하여 재단 신무님들께서 미사를 익현하며,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가능성을 믿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 후원금 사용보고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28조 및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소년단체입니다.

후원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아동·청소년의 육성, 복지, 자선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 혼산서류 공시시스템 글시(inpointo.homelex.go.kr), 공인회계사 세무확인, 주부관찰  
지도점검 등을 통해 보다 성실히 투명하게 길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	지출	잔액
1월	44,387,470	보호육성사업비 91,437,115 운영비 5,343,198	96,780,313
2월	40,016,000	보호육성사업비 15,090,306 운영비 5,850,500	20,940,806
3월	41,427,000	보호육성사업비 10,474,050 운영비 6,037,285	16,511,345
4월	52,152,800	보호육성사업비 42,758,365 운영비 3,966,452	46,724,817
5월	55,531,540	보호육성사업비 26,534,330 운영비 4,068,538	30,602,866
6월	233,514,810	보호육성사업비 186,294,176 운영비 25,265,971	211,560,147

“**청소년이 지닌 가능성에 흐원해주세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후원방법을 안내해드리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문의: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032-766-7942 / [www.yism.or.kr](http://www.yism.or.kr)

율들은 나누면 백만도 줄어들지만, 사할은 나누면 나눌수록 불가능합니다.  
제로이온이 체계화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체 이중화로 함께 사용자를 설립하게하세요!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七

성명		세례명(본명)	( / )
연락처		자택전화	
주소	소식지구독 <input type="checkbox"/>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卷之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기 글은 저를 찾고자 하는 독자 및 개인적인 독학자를 위한 솔직한 글이며, 저작자는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卷一百一十五

(이행비조 대금증기 다른 경우) 결제일: 2024년 06월 25일

#### (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귀중

제2장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택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이송에 빠르게 다뤄집니다.

● 22572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219 국정대학원 4층 ● 032-755-1268 ● youth@knu.ac.kr

[제] 가을비미율 청소년 재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최장빈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주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윤정 편집

청소년과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해주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0180909000000



2008年

10

• 韓國文化政策  
- 전통한국, 현대한국  
• 現代韓國政策  
- 現代한국

- 1st Mini Album "Mark"  
- 2nd Mini Album ACE Young Group  
- 3rd Mini Album WANT

▶ 웹사이트  
- <http://www.21st.org> HappyEverAfter